



2024
건부혁신
왕중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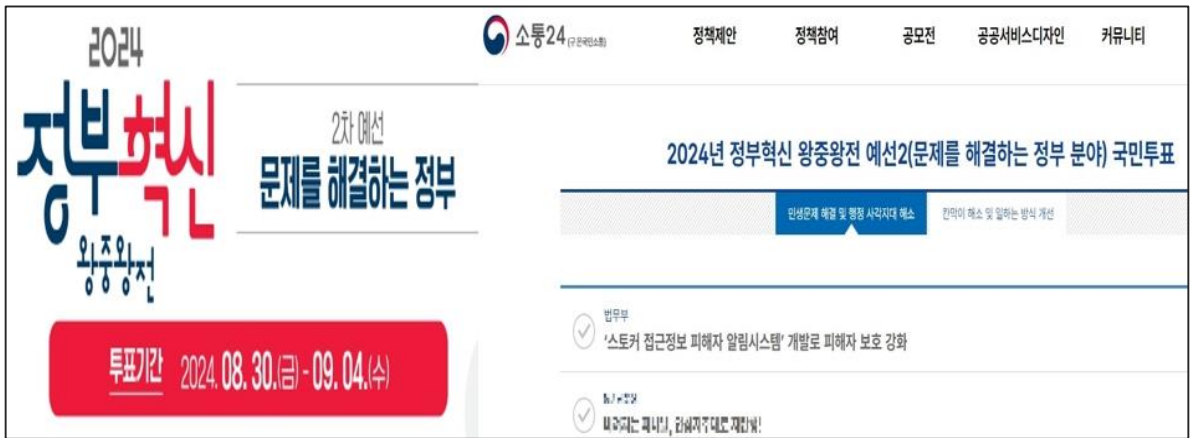
2차 예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

집중취재
강화된 조치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2024년 법무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다가간다



집중취재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2024년 법무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다가간다



2024년 7월 22일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상황점검 회의에서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2024년 법무부 정부혁신 대표과제 선정과 함께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참가

2024년 7월 26일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 사례를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제출하여 분야별 예선과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향후 예선 통과시 11월 14일 왕중왕전 본선 참가 예정입니다.

2024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또한 2024년 법무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모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동일한 사례를 제출하여 8. 21. 심사 결과 각각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전시 부스 참가 확정

아울러, 2024년 11월 13일(수)부터 11월 15일(금)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전자감독과는 법무부를 대표하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시 부스로 국민들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소년원 선배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퇴원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재원생들에게 선배들의 소년원 생활과 퇴원 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재원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어느 전주소년원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Home Coming Day!

매월 말 임시퇴원이 발표되고 아이들이 출원할 때면, 사회로 보내는 기쁨보다는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다시 소년원으로 되돌아올지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무엇이 문제일까? 가정환경, 소년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 자존감·분노조절·불안·우울 등 심리적 문제, 또래관계의 사회적 네트워크, 보호관찰 등 사후관리의 문제 등 수많은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

어느 날 “우리는 소년원 교사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답변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때맞춰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토론은 중단되었다. 10년 전 소년원에서 출원한 정식이(가명)였다.



“아버지(신은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덕분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식이/가명)

“짜~식, 나도 보고 싶다. 놀러 와라.”

열띤 토론에 참여했던 직원(김종언)이 “아따 형님 애기들이 왜 자꾸 전화한다요? 평소에 잘 해주셨소?”라며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쏟아냈다.

“그건 아니고 퇴원 후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전화 오는 녀석들인데 오늘도 전화가 왔네!”라며 웃어넘기려고 하자,

“애기들이 놀러 온다고 하면 오라고 하세요? 오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야그도 쪼까 해주고 하든 좋을 거 아니요? 그라고 애기들이 다 성인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다가 살고 있는디 후배들한테 좋은 야그 해주고”

“그래 애들 시간부터 물어보자”

퇴원한 녀석 중 간혹 안부를 물어오는 녀석들에게 취지를 설명하자, “후배(?)들이 희망을 품을 것 같다”라며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중 파주에 있는 정식이(가명)와 일산에 있는 동식이(가명) 두 명으로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기회에는 꼭 불러 달라는 녀석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할 예정이니까 사고 치지 말고 잘 살고 있으면 꼭 후배들과의 자리를 만들어 주리라 약속했다.

어떤 선배들을 만나도록 해줄까?

‘어떤 내용으로 접근할 것인가?’, ‘학생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보여주기식으로만 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아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막막한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려면 정해진 원고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내용으로 접근하자. 선배들 때의 소년원 생활, 고참문화 등 가리지 말고, 질문에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원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꼰통 정식이(가명)와 동식이(가명)

정식이(가명)는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집단, 흥기등 상해)로 10호 처분을 받고 경기도 00에서 전주로 온 녀석이다.

10호 처분을 받기 전 벌써 두 번의 시설 내 처분을 받고 살아본 경험이 있고, 분류심사원에서는 집단 이탈 모의가 사전에 발각되는 등 수용 생활을 힘들어하는 녀석이었다. 다부진 얼굴과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정식은 신입 교육을 마치고 본방에 배치된 첫날부터 고참과 싸움을 벌였다. 이후로도 ‘기분 나쁘다’, ‘짜려봤다’라는 사소한 이유로도 문제를 일으켰지만, ‘너, 할 수 있잖아’라고 하며 믿어주고 보듬어 주자, 웃음이 많아졌고, 먼저 다가오기도 했다. 2013.8.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정식은 당당하게 “선생님 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저 같은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했다.

검정고시 합격으로 이송이 결정된 정식은,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고만 치고 말 잘 안 듣고 했던 게 너무 죄송하고 후회가 됩니다. 부산에서 열심히 해서 꼭 헤어디자인 자격증도 취득하고 대학도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울먹였다.

그 해 말 정식은 원하는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해외 봉사활동에서 만난 ‘별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심규보씨를 멘토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 파주에서 결혼도 하고 “타이어 타이어”라는 가게를 운영하며 딸 돌잔치를 ‘24.09.28에 할 예정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정식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리고 동식아,

“선생님 이번에 완전히 도박하고 담쌓았습니다. 한때 정신 못 차리고 돈 좀 번다고 도박하고 술집 다니고 했던 행동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헤어디자인 반에 배치받는 게 싫었던 동식이는 컴퓨터반을 선택했지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징계를 여러 차례 받아 헤어디자인 반으로 오게 되었다. 잡담과 수업 거부가 일상이었다.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지 말고, 일단 함께 시작해 보자”라며 설득하고 지지해 주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며 마음을 다잡은 아이였다. 미용대회에 나가 자격증도 취득하였고, 군 제대 후 유통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00 유통(식음료 종합 물류)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Home Comming Day 드디어 막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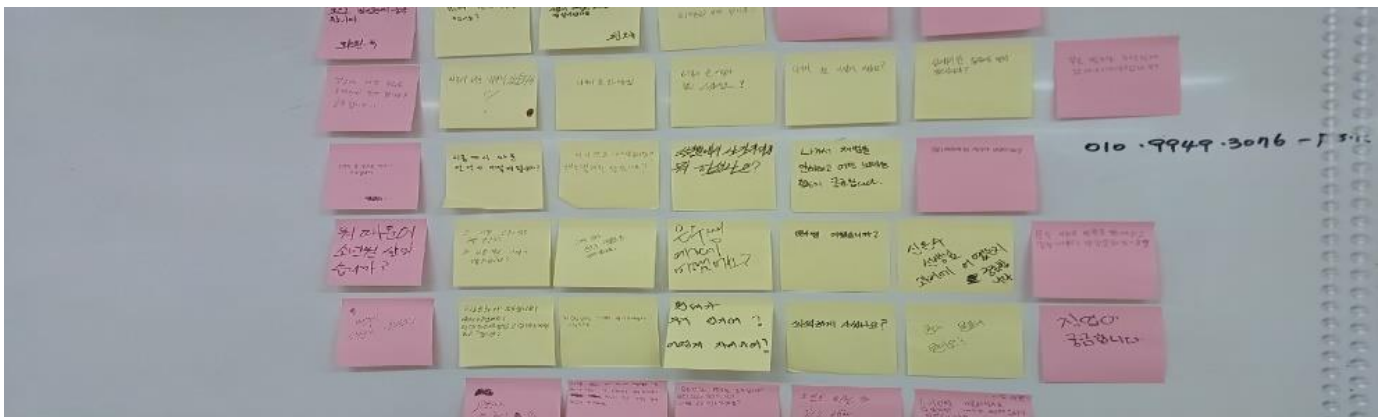
특강 1주일 전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선배들을 만났을 때 질문을 작성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장 궁금한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다. 질문은 아주 원초적이었던다.

- 출원 후 많은 범죄 유혹들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정신차리고 살았나요?
- 어떤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나요?
- 소년원을 갔다 왔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나요?
- 나가서 재범을 안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사소한 내용임에도 소년원 생활을 하는 자신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물어보고 답변을 얻는 내용이였다. 아주 사소하지만,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후 선배 강의가 시작되었고 초청 선배들에게는 강의를 준비할 내용으로는 한 두 가지 질문지만 제공되었을 뿐 특별한 강의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특강으로 만들기 위해 틀에 짜인 강의 보다는 선후배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갔다.





나의 어둠이 후배들에게는 희망으로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러링' 효과

선배의 모습을 통해 후배에게 미러링하는 과정은 재원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소년원 출신 선배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공적인 사회적응은 후배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미러링”이란 자신이 존경하거나 롤모델로 삼는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따라 함으로써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는 심리적 과정이다.

선배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행동과 성공적인 삶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배를 통해 변화를 이루고 후배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도전할 힘을 주었던 거 같았다.

10년 후에 저도 하고 싶어요. Home Comming Day !!

프로그램을 통하여 출원 후 느끼는 막막함이 조금은 해소되었고, 소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사회생활의 장애가 아니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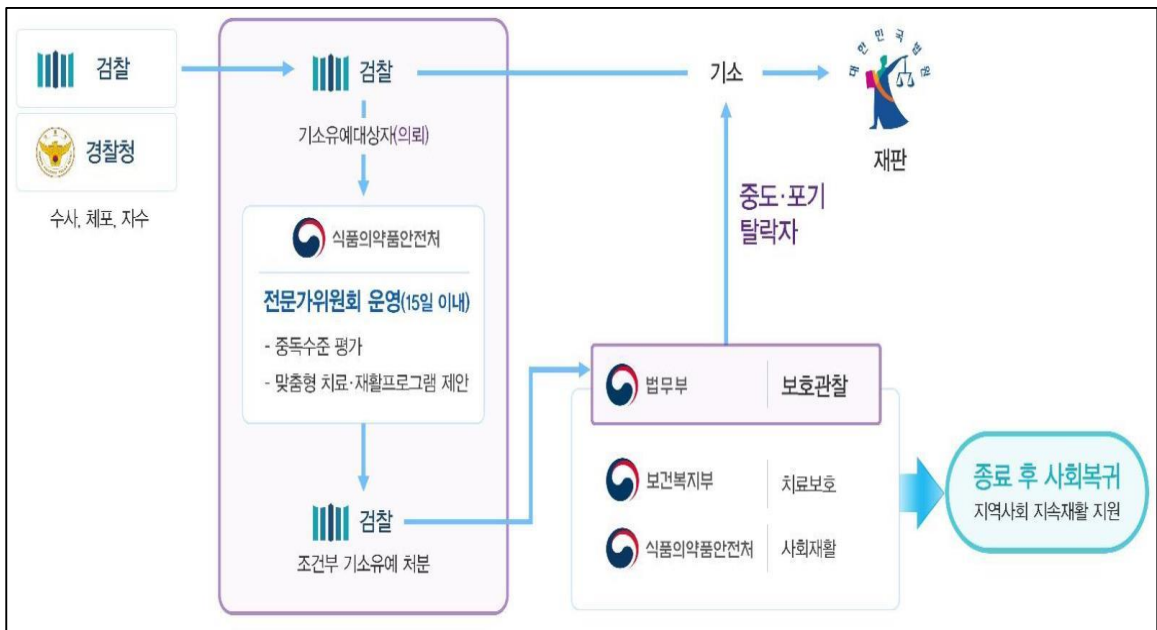
비록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퇴원 10년 전후의 출원생들이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Home Comming Day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각자의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빌어 본다.

“선생님 저도 10년 후에는 꼭 Home Comming Day 할 때 불러주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약류 기소유예자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검찰의 마약류 기소유예자에게 복지부·식약처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병행하는 협업체계입니다.

’23년 시범운영 참여자 22명 모두 재범 없어, 단약 효과 입증

’23년 서울·대전보호관찰소 등 6개 기관에서 시범운영(’23.6~12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하였으며,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제도 효과를 입증하였기에 식약처의 한걸음센터 개소 지역에 맞춰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마약류 재범 억제를 위해 부처별 촘촘한 역할 부여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되어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치료·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연계모델' 신설로 4종류가 운영됩니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기소유예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고,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할 한걸음센터를 기존 4개에서 11개까지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전국 32개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수시 또는 불시에 약물검사를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통신

소년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힘 모아



지자체 보조금을 확보해 소년대상자 치료 및 상담 지원

최근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문제를 겪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고착화와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 부족 등으로 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바로 2024년 상반기 경기도의 청소년지원사업에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질환·심리상담 사업’으로 응모해 1,6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 대상자들을 전문가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지원하며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기관에서 소년 대상자의 치료·상담 지원을 위해 지자체 보조금을 확보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큼니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정신질환 치료 및 상담 전문가를 12명으로 구성하고, 소년 대상자와 1:1로 결연하여 심리검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결과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검사비와 진료비는 물론,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게는 교통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심리상담 10명, 병원치료 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연계 상담이나 치료 내용은 담당자와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처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전화상담(콜코칭)으로 외출제한 및 재범방지 효과 향상

또한,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야간전화상담(콜코칭)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코칭은 상담 전문가가 야간에 소년 대상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을 도와 다시 비행에 빠질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은 야간시간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들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전화 및 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상담사와의 사례회의를 통해 소년 대상자의 평소 생활과 심리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도감독에 반영해 재범을 막고 있습니다. 8월말 기준으로 상담사 9명이 소년 대상자 야간전화상담 194회, 대면 상담 81회를 실시한 결과, 전국 소년 재범률에 비해 매우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 대상자 박○○은 공동폭행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연계한 전문가 상담 및 의료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이 회복되고 있고, 이와 함께 콜코칭 심리상담으로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불안 등 여러 문제를 가진 소년들에게 위험요인에 대응한 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삶 전반에 걸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비행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